

이제 다시 모공이다

# 차안박피부과의 스마트한 모공관리 솔루션

기습적으로 더워지는 요즘, 정직한 피부는 피지분비가 왕성해진다. 과다한 피지분비는 모공을 막히게 하면서 다양한 트러블을 유발한다. 미세먼지, 자외선과 같은 외부환경을 한번에 집어 삼킬만큼 겹잡을 수 없는 땀과 피지의 향연으로 피부는 초토화가 되기 쉽다. 다시 한번 모공관리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다 알지만 따져보면 잘 모르는 모공

모공을 흔히들 땀구멍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털구멍이다. 한자를 보면 좀더 명쾌해진다. 털이 자라 나오는 구멍과 같아서 ‘모공(毛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모공은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기도 하며 얼굴에만 약 2만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공과 땀구멍을 잘 구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땀이나 피지분비의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피부는 항상성이 있어서 요즘처럼 여름이 시작되면 땀과 함께 피지분비도 왕성해진다.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땀을 배출하기 위한 땀구멍과 피지를 배출하는 털구멍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구멍임에도 모공만 유독 관리유무에 따라 더 넓어지는 이유는 피지와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모공의 평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또한 모

공은 한번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조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모공 자체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이완된 상태로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공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화와도 관계가 있다. 노화의 과정 중 중력으로 피부는 처진다. 이때 모공 역시 처지게 된다. 한번 늘어난 모공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늘어나 더 커보이기까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대부터 피지조절 화장품과 철저한 클렌징으로 피부건강 및 모공상태를 유지하되 30대부터는 시술을 통한 스마트한 관리가 필요하다. 모공 잔혹동화의 서막이다.

## 난데없는 내 피부의 피지 척도 TEST

(피부 상태에 따라 피지 조절하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피부의 모공 상태를 판단하기가 쉽다. 따라서 내 피부의 피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한다. 단, 100% 믿어서는 안된다. 전문의를 만나러 가기 전 테스트임을 기억하자.

### CHECK LIST

- ☐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바르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든다.
- ☐ 세안 직후는 당기는 감이 있지만 스킨만 발라도 금새 촉촉해진다.
- ☐ 왕성한 피지 분비로 인해 피부가 번들거린다.
- ☐ T-ZONE부위는 모공과 블랙헤드가 눈에 띄는 편이다.
- ☐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올라온다.
- ☐ 세안 후 전혀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
- ☐ 모공이 넓은 편이다.
- ☐ 오후 2-3시 눈썹 사이를 만져보면 손에 기름기가 묻어 나온다.
- ☐ 기름종이를 즐겨 사용한다.

0 개

피지 조절 보다는 보습에 신경 쓴다. 크게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로션타입의 보습제와 수분 에센스 등을 꼼꼼히 발라준다.

1~2 개

OIL-FREE화장품이나 여드름 유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는 화장품을 이용하는 등 화장품 선택만 잘하면 피지 조절이 가능하다.

3~5 개

피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화장품은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주 1~2회 딥클렌징을 하며 주 1회 정도는 피지 조절 기능이 있는 마스크도 해주는 것이 좋다. 블랙헤드가 있는 사람은 블랙헤드 제거용 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개 이상

피지 분비가 상당한 편으로 OIL-FREE나 여드름 유발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화장품을 이용하는 등 스킨케어에 신경을 쓰더라도 상태가 심각한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진단과 병원의 치료를 받거나 피지를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모공이 커지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피지 척도를 알았다면 기본적인 모공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숙지해보도록 한다.

### 1 모공 관리의 기초 공사는 세안

일주일에 한번은 팩이나 스크럽제를 이용하여 모공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피지를 말끔히 씻어낸다. 건성피부일 경우 주 1회, 지성피부일 경우 1~2회가 적당하다.

우선 클렌징 전에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 주고 클렌징 후에 남아있는 피지나 노폐물은 약산성 세안 비누나 폼 클렌저를 이용해 거품을 낸 뒤 부드럽게 문질러 없앤다. 그런 다음 클렌저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내고 찬물로 마무리한다.



### 2 클렌징 후엔 피지조절이 필수

클렌징과 세안으로 모공을 청소한 후에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는 피지 조절이나 모공수축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이용하되 수분이 많은 젤 타입이나 로션을 선택한다.



### 3 잘못된 습관은 모공을 키운다

사우나를 자주 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도 모공에 나쁜 습관이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과 탄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모공이 커지는 원인이다. 또한 여드름을 제대로 치료 받지 않아도 모공이 커지므로 여드름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맡겨 조기에 치료해야 모공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차안박피부과의 스마트한 모공관리 솔루션 : 프락셔널고주파&하이드로필

### SOLUTION 01

#### 프락셔널고주파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으로 피부를 빈틈없이 채워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에 탁월하다. 그 원리는 프락셔널고주파의 미세바늘이 피부에 들어간 후에 피부 진피층 부위에 순간적으로 고주파(RF)를 직접 방사함으로써 노화되고 손상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로운 콜라겐 재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표피 화상이나 통증의 우려 없이 핀포인트 RF 에너지의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여 깊이와 배열이 일정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환자의 모공의 정도나 주름의 깊이에 따라 원하는 깊이에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3일 정도 붉은기가 유지되며 2일후부터는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콜라겐이 촘촘하게 재배치되는 과정 중에서 모공은 몰라보게 조여져 아기피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번의 케어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생활 속에 모공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게 필요하다. 한달 간격으로 3회 진행할 것을 권한다.

CNP  
SOLUTION

### SOLUTION 02

#### 하이드로필

하이드로필은 기본적으로 피지 및 블랙헤드, 각질을 청소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안면개선 효과는 부가적으로 따라 온다. 여기에 더해 유효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화이트닝 수분증진을 위한 시술의 전처치로도 시술 효과를 배가시키는 작용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 단독치료로도 피부를 대청소를 한듯한 말끔함으로 다음날 화장이 매우 잘 받아 입소문을 통해 D-DAY EVE (디데이이브)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날 하루 전에 받는 시술로 인기가 높다. 또한 압출 없이 치료하는 시술로 블랙헤드 제거시의 통증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에게 권할만 하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에 노폐물이 엉겨붙기 쉬운 계절에 발생하는 트러블 방지도 큰 도움이 된다. 모공속 미세먼지는 제거하고 철벽방어할 수 있는 수분을 충전해주기 때문이다.